

지난주일(7월17일) 설교 발췌

제목: 말씀이 없는 시대 (암 8:1~12)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의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입니다. 아모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 주 야훼의 말씀이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기근이 들면 많은 이들이 고통당합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에 IMF가 왔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기근이 들어도 서로 연대하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마치 '고난의 행군'처럼 보내면서도 하나님 신앙이 깊어졌듯이 말입니다. 아모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보았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고했습니다. 정작 굶주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시리아 제국과 '맛짱'을 뜨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때입니다. 선지자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솔깃하게 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살게 된 것은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아모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낭떠러지로 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오늘날도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중에 바알 선지자의 사탕발림에 가까운 설교가, 또는 종교적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한 설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실재'(reality)로 경험할 때 영혼의 만족이 주어집니다. 비유적으로, 여기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도 있고, 당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한 아이는 이렇게 놀다가 조금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에는 정말 좋은 게 많습니다. 부모와 형제들과 책과 장난감과 책상과 침대가,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놀면서 짜증 나는 일이 벌어져도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이터와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아이는 지금의 삶을 축제로 받아들입니다. 축제가 끝나면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으니 그는 신 한 껍데기로 가난한 자를 이용하는 일은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묵과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7월24일
성령강림 후 일곱째 주일
세계 교회력 「다」해 35주

✦ **오늘의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야생 나리꽃이다.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7월19일, 정용섭 목사가 찍은 사진)

예배 장소: 서울 동직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 간식 및 친교: 5:00~5:20 / 교우모임: 5:20~6:2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o/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는 현재 살아 있는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곧 죽는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순간이 오면 모든 궁극의 실체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최선의 삶은 하나님 찬양입니다.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1, 2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유한 능력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지금 일상을 멈춘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성령께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이시고 우리가 피할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하는 염려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참된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고 생명의 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5장 (찬미하여라) 2회 ... 다 함께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wo parts of a hymn. The first part is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 아' (Praise, O my soul) and the second part is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Praise, O holy Lord's name). The score is written for a piano and voic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and a 4/4 time signature. The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notes: Dm, G, Dm, Bb, C, F, A for the first part, and Dm, G, Dm, Bb, C, Dm for the second part.

[알리는 말씀]

* 지난주일(7월17일) 헌금: 760,000원(주일 80,000원, 통장 68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7, 8월 예배준비

날짜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 봉독	헌금/안내	예배준비
7월24일	4층 아트컬리지5	김동호	오미영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박수진 강윤선
7월31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윤혜정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최선아 박은숙
8월7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박수진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오미영 이유선
8월14일	4층 아트컬리지5	정용섭	김기범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최선아 박정덕
8월21일	4층 아트컬리지5	박재진	이유선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박은숙 김희란
8월28일	4층 아트컬리지5	김동호	오미영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박수진 강윤선

봉헌과 친교예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14장 (주 우리 하나님) 3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일곱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숨쉬기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먹는 일, 걷고 보고 사랑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일상을 성령의 능력에 기대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시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로 많은 이들이 죽
 기도 하고, 생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
 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면서 때로는 흡족해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화에 이를 수 없는 삶의 패턴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기독교 2천 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죄는 용서받았으니 더는 그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국악찬송」 6장 (영광 누리소서 3)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국악찬송」 112장 (사랑과 평화를 위한 노래) ... 다 함께

정세현

정세현



1. 하 나 님 뜻 대로 이 세 상창조 하 시고 우리 의 평 화 약 속 하 신 주
2. 하 나 님 당 신 의 정 의 와 사 랑 평 화 는 우리 의 가 슥 일 령 입 니 다



자 유 와 평 화 와 사 랑 의 꿈 을 위 해 서 우리 는 모 두 기 도 합 니 다
내 려 라 단 비 야 사 랑 의 꿈 을 위 해 서 우리 의 가 슥 터 져 붓 도 록



이 세 상 모 두 가 사 랑 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 두 행 복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정 의 의 마 음 이 라 면 우리 는 모 두 행 복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사 랑 과 평 화 뿐 이 면 우리 는 기 뻐 노 래 하 겠 네
이 세 상 모 두 가 믿 음 과 소 망 이 라 면 우리 는 기 뻐 노 래 하 겠 네



어 허 야 어 야 디 야 어 허 야 어 야 디 야 어 기 야 디 야 어 야 디 어 차



어 허 야 어 야 디 야 해 방 을 위 해 우 리 모 두 예 수 의 길 을 걸 게 하 - 소 서
어 허 야 어 야 디 야 평 화 를 위 해 우 리 모 두 예 수 의 길 을 걸 게 하 - 소 서

말 씀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소란한 소리에 파묻혀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쇠약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호세아 1:2~10 ... 오미영 집사

성시교독 시편 85:1~13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하나님은 주의땅에 복된은혜 베푸시어 포로가된 주님백성 돌아오게 하셨다네
-주의백성 지은죄악 용서하여 주시었고 모든죄를 묻지않고 용서하여 덮으셨네
주님께서 노여움을 말씀하게 사시시고 타오르는 진노마저 돌이키사 거두셨네
-우리구원 주 하나님 우리회복 시키시고 우리에게 품고계신 노여움을 풀으소서
주님이여 언제까지 노하시려 하십니까 대를이어 그노여움 품으시려 하십니까
-우리들을 되살릴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의백성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주님 변함없는 사랑보여 주옵시고 주의구원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소서
-주님주신 모든말씀 순종하고 따름으로 세속적인 어리석음 반복하지 않으리라
-주님경외 하는자는 구원의삶 멀지않고 주님영광 우리땅에 영원무궁 머무르리
-크신사랑 진실함이 소리높여 화답하고 정의로움 평화로움 하나되어 화답하리
땅에서는 진실함이 새순처럼 돌아나고 하늘에선 정의로움 굽어살펴 보시리라
-주님께서 좋은것을 가득내려 주시오니 평화로움 그발자취 뒤따라서 가리로다

둘째말씀 골로새서 2:6~15 ... 오미영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11:1~13 ... 오미영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성령을 주시리!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96장 (성령의 은사를) ... 다 함께